

현장과 시각

쌀 직불금, 처벌도 좋지만...



채희중

사회2부 차장

“쌀 직불금” 부당 수령 파문이 날로 커지면서 농도인 전남지역 공무원들이 긴장하고 있다.

최근 쌀 직불금 수령자 자기 신고를 받은 결과, 전남은 분청과 22개 시·군 및 산하 기관에서 총 4천226명이 접수했다.

광역단체 중 자기 신고 자 수가 가장 많았다. 물론 농도가 가장 많기 때문이다.

쌀 직불금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매년 쌀 직불금이 부당하게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이 각종 매체에 보도됐을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의 감사에서도 수시로 적발돼 왔다.

“벌일 있었어 남들보다 타는데, 가족이 농사짓는 내 내가 타도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직불금을 수령한 이들이 대부분이다.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사람이 직불금을 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더욱이 행정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이를 모를 턱이 없다.

이번 직불금 사태는 특정지역이나 특정인에 국한된 것이 아닌 우리 사회 전반의 ‘도덕 불감증’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직접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 50~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상당수 소작농은 농토를 빼앗길까봐 직불금 부정행위를 알고서도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면에서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은 공직자라는 신분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일반인에 비해 엄격한 자기 반성과 그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제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들의 부당성 여부를 가리고, 직불금을 실정자에게 돌려줄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수도권지역 공무원의 상당수가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받기 위한 증명의 하나로 쌀 직불금을 신청한 것에서 보듯, 세금 탈루용으로 직불금을 받은 경우는 그에 상응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반면 요즘 농사는 대부분이 기계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꾼 조달만 가능하면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억울한 공무원들이 없도록 조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실제 군 단위 지역에서는 간부급 공무원들도 농사를 짓는 경우가 있다는 게 주변 농민들과 동료 직원들의 얘기다.

장흥군 부산면의 한 농민은 “농민들의 직불금을 빼앗아 간 공무원들은 무겁게 처벌해야 하지만 일과 농사를 함께 하는 성실한 공무원들이 자칫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부당 수령인지 아닌지 여부는 수령자 자신들이 정확히 알고 있을 것이다. 부당 수령을 한 공무원들은 지금까지도 농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기 신고해야 한다.

/chaekw@kwangju.co.kr

김정일 잠행 계속 건강 이상설 증폭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잠행이 계속됨에 따라 그의 건강 이상설도 끊이지 않고 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9.9월 기념 열병식에 불참하면서 외병설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지 한달만인 이날 초 김 위원장의 측근 경기 관람 사실을 보도하고 군부대 시찰 사진 10여장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들 사진이 최근 찍은 것이 아니라 의혹이 제기되고 이후에도 김 위원장이 해외활동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건강 이상설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 북한이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빠라)살포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김 위원장이 대중 앞에 나와 건재를 과시할 수 없는 건강상의 이유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29일 “민약 김 위원장이 당장 공개활동을 통해 건재를 과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북한으로선 빠라 문제를 심각한 체제 위협 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더해 김 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이 지난주 프랑스 파리를 방문, 지명된 뇌신경외과 전문의를 초청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28일에는 김 위원장의 병세가 나빠지는

일본 정부 당국자의 첫 공식 발언도 나왔다. 아소 다로(麻生太郎) 총리는 김 위원장의 건강과 관련, 이날 참의원 외교방위 위원회에서 “(김 위원장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정보가 있다”며 “별로 상황은 좋지 않다”고 했다.

그는 “다만 판단이 전혀 가능하지 않은 상황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우리 정보 당국은 김 위원장 건강상태가 후유증이나 외양의 변화 등으로 인해 공개활동을 하기에는 어려울지 몰라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고비는 넘기고 회복단계에 있다는 판단이다.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역시 28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건강상태와 관련, “신체적으로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업무처리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병원 입원설이 제기됐지만 이를 병세 악화에 따른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기동 박사는 “여러가지 동향으로 봤을 때 생각보다는 (김 위원장의) 회복 속도가 더딘 것 같다”며 “하지만 통치능력을 상실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거동이 불편하니까 대외적 공개활동에 지장을 받는 정도의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北 ‘혁명 1세대’ 박성철 정치국원 사망

북한 박성철 노동당 정치국원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명예부위원장인 95세를 일기로 28일 사망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29일 전했다.

고 김일성 주석과 함께 활동한 ‘혁명 1세대’인 박성철은의 사인에 대해 중앙통신은 “오랜 병환”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국장으로 치르기로 하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조영록 국방위원회 1부위원장, 김영일 내각 총리 등 당·정·군 고위간부들이 망라된 65명의 국가장위원을 위촉했다.

그의 시신은 평양시 보통강구역 서장회관에 안치됐으며 30일 오전 8시 발인할 예정이다. 건강이상설 속에서 공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9일 박성철의 빈소에 조화를 보냈다고 북한 매체들은 전했다.

경상북도 경주 출신으로 항일투쟁에 참여했던 박성철은 1945년 광복 후 김일성



과 함께 북한에 들어온 뒤 인민군 제15사단장, 민족보위성 정찰국장, 불가리아 주재 대사, 노동당 국제부장, 외무성, 노동당 중앙위원, 정무원 총리, 국가 부주석을 지냈으며 1994년 김일성 주석 국가장위위원회에는 5번째, 1995년 오진우 국가장위위원회에는 4번째로 이름이 올라가기도 했다.

그는 특히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에 따라 구성된 남북 조절위원회 북측 위원장이었던 김영주 조직지도부장을 대신해 서울을 비공군 방문, 박정희 대통령을 만났으며, 1~3차 조절위 공동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

그는 1998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에 선임되면서 사실상 은퇴했다.

/연합뉴스

미 대선 D-6

미국인 10명중 7명 “오바마 당선”

갤럽 여론조사...매케인은 23% 그쳐

미 대선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미국인 10명 가운데 7명은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의 당선을 점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8일 갤럽에 따르면 11.4 대선에서 오바마가 승리할 것으로 전망하는 미국인은 71%로 나타난 반면 매케인의 당선을 믿는 응답자는 23%에 그쳤다.

이는 지난 6월 오바마와 매케인간 양자 대선구도 확정 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오바마가 당선가능성에서 매케인을 52% 대 41%로 앞섰던 것과 비교해 크게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특히 매케인 지지자들 가운데 49%가 오바마의 승리를 접쳐 매케인 당선을 전망한 46% 보다도 오히려 높았다.

대선을 코앞에 둔 지난 23일부터 26일간 실시된 이번 여론

조사 결과는 대세가 이미 오바마 쪽으로 기울어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갤럽은 “일각에서는 오바마 지지자들이 이런 추세에 안주해서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바마가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가운데 갤럽이 25~27일까지 실시한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오바마와 매케인의 격차는 다소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갤럽이 등록유권자들이 갖고 있는 현재의 투표성향만 변수로 대입해 실시한 조사에서는 오바마와 매케인의 지지율이 51% 대 44%로 7%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이는 26일 발표된 조사결과인 53% 대 43%보다 3%포인트가 줄어든 것이다.

갤럽이 현재의 투표성향과 과거의 투표를 및 투표행태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해 실시한 조사에서는 오바마와 매케인은 49% 대 47%로 비교적 근소한 차이를 나타냈다.

/연합뉴스



파키스탄 강진 사망자 150명 넘어서

29일 오전 5시10분(현지시간) 파키스탄 남서부 발루치스탄주(州)에서 리히터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 산사태와 가옥 붕괴가 속출했다. 국영TV는 사망자가 150명을 넘어섰다고 보도했고 기상당국도 사상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9일 오전 5시10분(현지시간) 파키스탄 남서부 발루치스탄주(州)에서 리히터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 산사태와 가옥 붕괴가 속출했다. 국영TV는 사망자가 150명을 넘어섰다고 보도했고 기상당국도 사상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소말리아 해역에 해군 파병기로 日銀, 금리 인하 검토

정부가 해적퇴치를 위해 소말리아 해역에 해군을 파병하기로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 관계자는 29일 “해적에 의한 선박 납치사건이 빈번한 소말리아 인근 해상을 지나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해상안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해군 함정을 파견하기로 부처 간에 의견조율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말리아 파병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정부합동실사단을 지난 27일 현지에서 파견한 바 있다.

실사단은 파병 여부에 대한 판단보다는 배치 지역과 연합해군 사령부와의 협조

제 등 실제 활동에 필요한 사항들을 확인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파병에 신중한 입장인 국방부와 외교부 등의 설득으로 파병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파병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최종 결정은 사실상이 복기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동의를 거쳐 파병이 최종 결정되면 해군 함정이 국외에서 실제 작전에 투입되는 첫 사례가 된다. 국회 동의 등에 시간이 필요해 실제 파병은 내년 초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행이 엔고(高)와 주가 폭락 등 세계 금융시장의 동요로 경기 후퇴가 우려됨에 따라 정책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지가 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일본은행은 오는 31일 개최되는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시장 동향 등을 감안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인데, 금융기관에 거래되는 단기차입금 하한액이 무담보 콜금리의 유도 목표를 현재 0.5%에서 0.25%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은행의 금리인하는 시장에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양적완화 정책으로 지난 2001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연합뉴스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주)옥션코리아. Includes contact info (062)222-8446, H.010-3666-8446, and various real estate listings with columns for location, area, price, and features.

Advertisement for 아이엘리시아 (iElysia) restaurant. Features a logo, website (www.ieysia.com), and a menu with prices for lunch and dinner. Includes a photo of a chef and promotional text about food quality and service.